https://namu.sdm.go.kr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소식지
Nature and Natural History

2024 여름호 **제81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자연과 자연사

발행인 |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정용균 편집 | 학예연구팀 발행일 | 2024. 6. 10.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51 전화 | (02)330-8899 팩스 | (02)330-1736

02 | 자연사이야기 – 인간에 의한 지구, '인류세 Anthropocene'
05 | 전시물 소개 –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표본은 어디서 왔을까?
08 | 전문가 기고 – 같이 알자, 같이 하자! "열 두 달 지구하자!"
10 | 전시
11 | 교육
14 | 지난 행사
16 | 관람안내



01 자연사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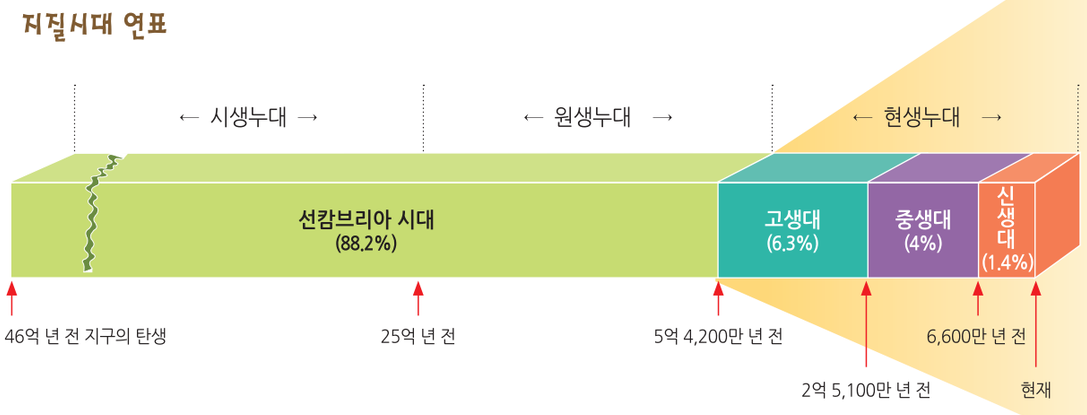
인간에 의한 지구, '인류세 Anthropocene'

김미정 학예연구사

2024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기획전시 주제는 '인류세'로 선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 개념은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지질학적 명칭입니다. '인류세'로 구분 짓는 시기와 특징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 인간이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개최될 기획전시에 앞서 '인류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인류의 시대', 새로운 지질시대의 명칭

지구의 역사는 지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국제지질학 연합 산하의 '국제층서위원회'에서는 현재 우리가 딛고 있는 지층의 이름을 신생대 제4기 '홀로세'라고 정했습니다. 홀로세는 1만 년 전, 기후가 따뜻해지고 기온이 비교적 유지되면서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때부터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자연의 생물과 함께 살던 홀로세의 지층은 예전에 없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인구와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콘크리트, 자동차, 공장식 축산, 플라스틱, 화석연료의 소비와 생산은 땅과 하늘, 바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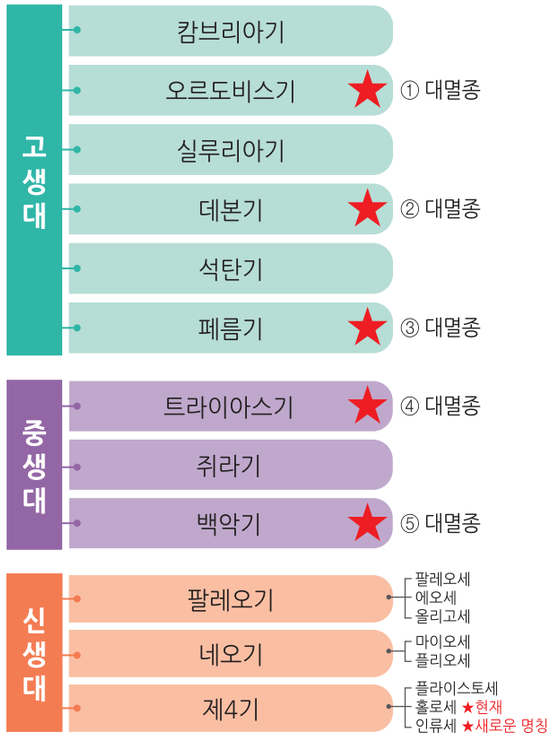


2000년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 지권-생물권 프로그램 IGBP' 회의에서 대기화학자 파울 크뤼천이 처음 인류세의 개념을 제안하였습니다. "인류의 시대"를 뜻하는 인류세는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의 역사에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는 새로운 지질시대의 명칭입니다. 20만 년 전 등장한 인류가 46억 년전 탄생한 지구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킨 증거를 '인류세'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플라스틱, 미세먼지, 신종 전염병, 치킨

46억 년 지구의 시간을 1년이라고 한다면, 인류는 12월 31일 밤 11시쯤 태어났습니다. 농사의 시작은 밤 11시 59분에 시작하였고, 홀로세는 1년 중 1분 전부터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구에 끼치는 영향은 홀로세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확장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인류세로 불러야 할까요?

1945~1950년부터 인류는 핵무기와 플라스틱을 개발하여 사용했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경쟁과 자원의 약탈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핵무기와 플라스틱을 더욱 발달시키고 대량 생산의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질 시대 ?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지질 시대 구분 기준
생물의 출현과 번성, 그리고 멸종

지질 시대의 단위
지질시대의 가장 큰 단위는 누대, 그 다음으로 크기에 따라 대, 기, 세, 시대라고 부른다.

지구에서 가장 큰 다섯 번의 멸종

① 오르도비스기 대멸종
4억 4,000만 년 전, 생물 종 85% 멸종

② 데본기 대멸종
3억 7,000만 년 전, 생물 종 70% 멸종

③ 페름기 대멸종
2억 5,100만 년 전, 바다 생물 종의 96%, 육지 생물 종의 70%가 멸종

④ 트라이아스기 대멸종
2억 500만 년 전, 생물 종의 80% 멸종

⑤ 백악기 대멸종
6,550만 년 전, 생물 종의 75%가 멸종

콘크리트, 플라스틱, 미세먼지, 신종 전염병, 치킨은 '인류세' 지구의 특징입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티글로머레이트(plastiglomerate)'라는 이름으로 '플라스틱 암석'을 의미합니다. 플라스틱 암석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온도가 높아졌을 때 플라스틱 쓰레기가 산호나 돌에 결합 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썩지 않는 신종 쓰레기 플라스틱 암석은 지금의 인류세를 대표하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아직 국제층서위원회는 언제부터 인류세로 보아야 할지, 인류세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 인류세의 플라스틱 암석 '플라스티글레머레이트 Plastiglomerates' (출처 Aaikevanoord, Wikimedia)

과거의 멸종과 6번째 멸종

지구 최초의 생명은 바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생물이 육지로 올라온 후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화산 폭발과 운석 충돌은 지구의 독성 물질과 거대한 화재를 일으켰고, 이로 인한 지구 환경의 변화가 생물 대부분의 멸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지구에 늦게 나타난 인간은 화석연료와 핵 발전, 콘크리트, 생물 서식지 파괴와 밀렵, 화학살충제, 미세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생태계의 최상위층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대량 소비는 그 시간이 너무 짧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후와 자연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여섯 번째 대멸종'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인류세'는 인간이 책임져야 할 지구의 강력한 경고장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6번째 멸종은 인간이 겪게 될 첫 번째 멸종이 될지도 모릅니다.

02 전시물 소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표본은 어디서 왔을까?

황학빈 학예연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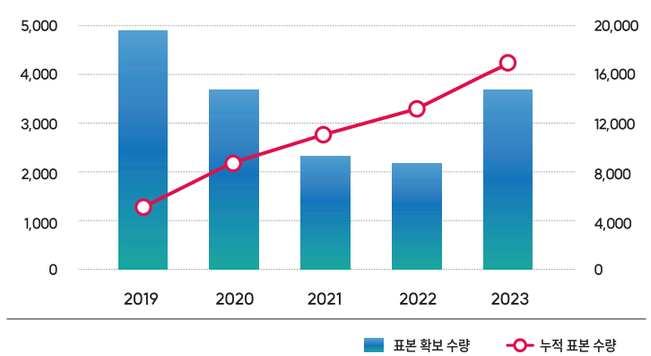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표본 현황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소장표본은 약 5만 1천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은 건립되어 있지 않고, 자연물과 관련된 생물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다양한 표본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물자원관, 수목원, 각종 생물관련 연구기관들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연구용 생물을 수집해서 표본으로 수장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 중 대표적인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은 약 22만 점의 표본을 수장하고 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자연사 표본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의 국립자연사박물관(National Natural History Museum)은 37만 점, 일본의 국립과학박물관(National Museum of Nature and Science)은 4백만 점의 표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의 자연사박물관은 3백만, 6천7백만, 8천만 점의 표본을,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은 1억4천 8백만 점의 소장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미국-유럽의 박물관 대비 소장품의 보유 비율이 0.1~0.2% 수준, 일본과 비교해서 약 1.4% 수준으로 아직 부족합니다.

2003년 개관 이후 박물관에서 전시와 교육을 담당하는 학예사들은 꾸준히 자연사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산과 들로, 하천으로 바다로 채집을 나가서 미래 연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표본과 전시에 적합한 표본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표본이나 길에서 습득한 죽은 동물의 사체를 기증받고,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표본확보 현황(2019~2023)



	표본 확보 수량	누적 표본 수량
2019	4,950	4,950
2020	3,692	8,642
2021	2,307	10,949
2022	2,186	13,135
2023	3,693	16,828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종료된 시료를 기증받아 표본으로 재탄생시켜 전시나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국 생물 전시를 위해서 해외에서 제작된 박제를 수입하고, 화석과 광물 등도 구매하여 확보합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박물관의 표본은 구입, 제작, 채집, 기증의 방법을 통해서 16,828점이 증가했습니다(p.5 그래프). 개관 20년 동안 확보한 표본의 33%에 해당합니다.

2024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표본확보



예상 밖의 눈이 많이 내려 강원도에 많은 수의 산양이 폐사한 일이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한 두 마리도 아니고 약 3개월 동안 277건의 멸실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니, 지난 5년 평균 11~14마리의 멸실 건수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식물의 잎이나 종자를 먹는 산양은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와 많은 눈 때문에 먹이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폐사한 개체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아 무리에서 밀려난 수컷이나 아직 어린 개체인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강원도 양구군의 협조로 다 자란 암컷과 수컷 성체, 어린 개체를 각각 기증받아서 박제로 제작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향후 1층 인간과 자연관의 코너에서 새롭게 전시되는 산양을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백령도에 좌초되어 백령면에서 좌초되어 해변으로 밀려온 밍크고래(암, 약 7m)를 백령면의 협조로 기증을 받아 골격표본을 제작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포유류는 가죽으로 박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는 피부가 얇고, 두꺼운 기름층이 덮여 있어 가죽으로 박제를 제작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자연사박물관에서 소장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고래류의 표본은 골격만을 보존 처리한 골격 박제입니다. 우리 박물관의 중앙홀 상단에 전시되고 있는 향고래는 이러한 이유로 모형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약 1년간의 제작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밍크고래 골격 표본도 내년에 해양포유류 전시 코너에 전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외에서 반입을 추진하고 있는 표본도 있습니다. 대형 육상 포유류 중 덩치가 세 번째로 크고, 우제류 중에서는 가장 큰 수컷 하마 표본을 박물관의 새로운 전시물로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산 포유류의 박제는 해당 생물의 희소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매우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박제 확보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올해 국외 하마의 가죽을 구매하여 내년에 국내에서 박제를 제작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마는 돼지와 생김새가 닮았지만, 계통상으로 고래와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하마의 박제 표본이 완성되면 향후 박물관의 2층 해양포유류와 육상 포유류 사이의 전시공간을 부분 개편하고 전시할 예정입니다.

표본이 만들어지는 과정

1.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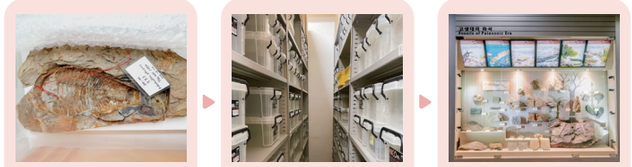
2. 곤충



3. 식물



4. 암석, 화석



⚠ 표본은 채집 외에도 기증과 구입 등의 방법으로 수집됩니다.

⚠ 새로운 화석을 발견한 때에는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화석 발견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03 전문가 기고

같이 알자, 같이 하자! “열 두 달 지구하자!”

권성희 교사(영천초등학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자연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찰해본 경험이 있나요? 단순히 분홍색이라고 생각했던 벚꽃도 오랫동안 자세히 들여다보면 흰색, 진분홍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환경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살펴보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이전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지구를 위한 한 시간, 어스 아워로 대표적인 환경기념일입니다. 어스 아워는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전등을 소등함으로써 기후 위기와 자연 파괴 등 위기에 처한 지구를 위해 행동하는 캠페인입니다. 이날 교실에서는 1시간 동안 전등과 전자 기기를 끄고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이 끝나면 다시 불을 켜지만 학생들은 생각보다 오전에는 불을 켜지 않아도 수업에 큰 지장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집에서 저녁 8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소등 행사에 참여하는데 불을 끄면 비로소 보이는 장면들이 있답니다. TV를 켜놓았을 때는 들리지 않았던 풀벌레 소리, 밤하늘의 별, 달빛에 비쳐 빛나는 호수의 모습들이 그것이죠. 그리고 어스 아워가 끝난 후에도 도시를 둘러싼 수많은 인공조명, 장식을 위해 나무에 둘러놓은 알전구 등 새롭게 보이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불을 꺼보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어스 아워를 혼자 실천하기보다는 우리 반 모두 실천했을 때 30명분의 전기를 아낄 수 있고, 나아가 다른 반, 다른 학년에 알려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한다면 더 많은 전기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 행동은 나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변에 같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좋습니다.

4월의 환경기념일에는 종이 안 쓰는 날(4일), 식목일(5일), 지구의 날(22일) 등이 있습니다. 종이 안 쓰는 날은 4월 5일 식목일 하루 전으로 나무를 심는 것이 어렵다면 종이를 안 쓰는 것으로 나무를 아껴보자는 메시지가 담긴 환경기념일입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종이 사용량은 189.2kg, 1년에 한 사람이 약 40만 장의 복사 용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종이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도 종이 낭비의 심각성을 알고 회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 안내장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학습지를 1장도 쓰지 않고 수업해보는 도전을 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 일이 있다면 자석으로 된 화이트보드나 배움 공책을 활용합니다. 선생님도 이날 하루를 보낸 후 학습지 없이도 학생들의 배움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도 학습지 사용을 줄이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학생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겁니다. 환경 행동의 효과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나 혼자 행동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되는 학생들에게 9살 소년 펠릭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북극곰을 사랑하는 9살 소년 펠릭스는 북극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무 심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개선하기 위해 나무 100만 그루를 심겠다고 다짐한 소년의 말에 어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반응에 굴하지 않고 펠릭스는 나무를 함께 심을 친구를 모집하였고 이 행동은 독일 전역으로 퍼져 3년 뒤 50만 그루를 심는 데 성공합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어른보다 지금 당장 행동하는 어린이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환경에 대해 알고 난 후 분리 배출되지 않은 쓰레기 더미가, 과대 포장된 플라스틱 음료수가,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종이 학습지가, 아무도 없는 교실에 켜져 있는 전등이 마음에 걸린다면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봅시다. 행동하려는 여러분 옆에 함께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함께 알고 함께 행동하며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구해봅시다.



▲ 권성희 선생님의 환경 강의





▲ 더 큰 힘을 모으기 위해 어스 아워를 홍보하는 아이들

04 전시

현재 전시 2024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제2차 특별전시 '플라스틱 플라넷'



- **전시기간 :** 2024. 5. 3.(금) ~ 8. 4.(일)
- **전시장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1층 특별전시장
- **주　　관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 **협　　업 :** 수퍼빈(주)

- **전시소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을 주제로「플라스틱 플라넷」특별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쉽게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올바른 재활용에 대해 이해하고 인공지능 재활용 로봇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를 공동 기획한 '수퍼빈(주)'은 순환자원 거래 플랫폼 서비스로 재활용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환경기업입니다. 이번 특별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함께하는 야외 행사를 진행하였고, 6월 연계 강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 기간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 전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제23회 기획전시 '공룡, 다음 인간'

- **전시기간 :** 2024. 8월 / 예정
- **전시장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 **주　　관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 **전시소개**

현재의 지질시대 공식 명칭은 신생대 제4기 '홀로세'입니다. 홀로세는 빙하기 이후 지구의 기온이 유지되고 비교적 따뜻한 시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는 기온이 일정하지 않고, 많은 생물 종이 사라지고 있으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델란드 대기 과학자 파울 크뤼천은 콘크리트, 플라스틱, 미세먼지, 신종 전염병이 발생하는 현재의 지구를 '인류세'로 제안했습니다. '인류세'는 인간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지구에 가장 늦게 출현한 인간이 빠르게 변화시킨 지구와 우리의 위기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전시 기간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시 연계 강연 확인 p.12

05 교육

6~7월 올해의 과학도서 저자강연

과학자와 함께하는 북토크! APCTP(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서 선정한 '2023 올해의 과학도서'를 해설합니다.

- **교육대상 :** 청소년 및 성인 60명
- **교육내용 :** '나노화학' 등 5개 강연
- **모집일정 :** 2024. 6. 4.(화) 10시~마감 시까지
- **교육일정 :** 2024. 6. 20.(목)~7. 18.(목)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120분)
- **장　　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4강은 온라인)
- **수 강 료 :** 무료

※ 문의 02-330-8871

지난 강연



2024. 3. 28.(목)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민태기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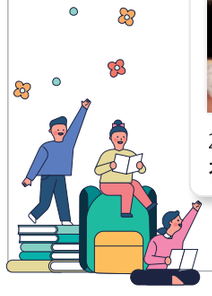
2024. 4. 4.(목) '나는 사이보그가 되기로 했다'
장동선 교수



2024. 4. 18.(목)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범준 교수



2024. 4. 25.(목) '다윈의 미완성 교향곡'
김준홍 교수



6월 특별전시 <플라스틱 플라넷> 연계 과학강연

☑ **교육대상 :** 초등학생 이상~성인
☑ **교육내용 :** '인류가 만든 플라스틱 행성의 쓰레기 이야기' 등 2개 강연
☑ **모집일정 :** 2024. 6. 4.(화) 10시~마감 시까지
☑ **교육일시 :** 2024. 6. 22.(일)~6. 23.(일)
☑ **교육시간 :** 14:00~15:30(90분)
☑ **장　　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 **수 강 료 :** 12,000원/인(연간회원 10,000원, 구민회원 8,000원)
※문의 02-330-8871



6월 박물관 탐구여행

자세한 전시장 설명과 함께 관람학습지를 풀어봄으로써 46억년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이해합니다.

☑ **교육대상 :** 유치부 7세, 초등 1~6학년
☑ **교육내용 :** '저 투어' 등 10과목 12강좌
☑ **교육일정 :** 2024. 6. 1.(토) ~ 6. 29.(토)
☑ **교육시간 :** 120분(유치부 90분) [10:00~12:00, 13:00~15:00]
☑ **장　　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전시실 및 제5교육실
☑ **수 강 료 :** 16,000원/인 (연간회원 11,000원, 구민회원 10,000원)
※문의 02-330-8873

6~8월 『과학의 눈으로 자연을 그리다』 조류세밀화 교실

그림의 대상으로 새가 갖는 매력을 느끼고 여러 종의 새를 그려보는 과정

☑ **교육대상 :** 성인
☑ **교육내용 :** 수채화를 이용한 세밀화교육
☑ **모집일정 :** 2024. 6. 3.(월) 10시~마감 시까지
☑ **교육일시 :** 2024. 6. 13.(목)~8. 22.(목) 매주 목요일 13:00~15:00
☑ **장　　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제3교육실
☑ **수 강 료 :** 250,000원/인(10주 연속 수강)
※ 그리기 도구(종이, 연필, 물감 등) 제공
※ 문의 02-330-8858



7월 가족과 함께하는 달보기

천문교육과 체험(달관측)을 통해 가족과 함께 박물관에서 즐거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 **교육대상 :**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
☑ **교육내용 :** 천문강연, 천문공작, 천체관측, 천문시뮬레이션 관측 등
☑ **모집일정 :** 2024. 7. 8.(월) 11시~마감 시까지
☑ **교육일시 :** 2024. 7. 16.(화) 19:30~22:00
☑ **장　　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및 주차장
☑ **수 강 료 :** 20,000원/인(일반 연간회원 16,000원, 구민 연간회원 13,000원)
※문의 02-330-8863



7~8월 여름학기 자연사 배움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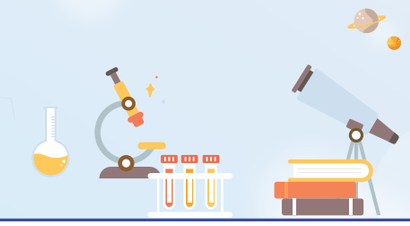
학년별 교과과정에 맞춰 자연사와 관련된 이론 설명과 전시물, 영상 및 재미있는 실습을 통해 자연사를 공부합니다.

☑ **교육대상 :** 유치부, 초등 1~6학년
☑ **교육내용 :** '곤충의 역습' 등 17과목
☑ **모집일정 :** 연간회원 2024. 6. 18.(화) 10시~마감 시까지 ㅣ 일반회원 2024. 6. 20.(목) 10시~마감 시까지
☑ **교육일정 :** 2024. 7. 6.(토)~8. 25.(일) 90분[10:00~11:30, 13:00~14:30, 15:00~16:30]
☑ **장　　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제1, 2, 3교육실 및 전시실
☑ **수 강 료 :** 16,000원/인(연간회원 13,000원/인)
※ 문의 02-330-8858

8월 과학도구 빌려주는 자연사박물관

과학도구(현미경, 망원경) 사용법을 교육한 후 관련 과학도구를 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교육대상 :**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2~4명)
☑ **교육내용** - 현미경, 작은 세상을 살펴보는 과학도구 : 현미경 조작 실습 및 프레파라트 제작
- 망원경, 밤하늘 관측 과학도구 : 천체관측 기초 및 망원경 조작 실습
☑ **모집일정 :** 2024. 8. 5.(월) 11시~마감 시까지
☑ **교육일정 :** 2024. 8. 17.(토)
☑ **교육시간 :** 90분~120분 [14:00~16:00, 19:00~21:00]
☑ **장　　소 :** 박물관 세미나실(2층)
☑ **수 강 료 :** 25,000원/인
※문의 02-330-8863



06 지난 행사

4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봄 음악회

자연사박물관 중앙홀에서 봄을 주제로 한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봄에 맞는 생동감 넘치는 음악들을 뛰어난 연주자들과 함께 관람객분들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음악회에 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서대문자연사 박물관 유튜브에 봄 음악회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꼭 감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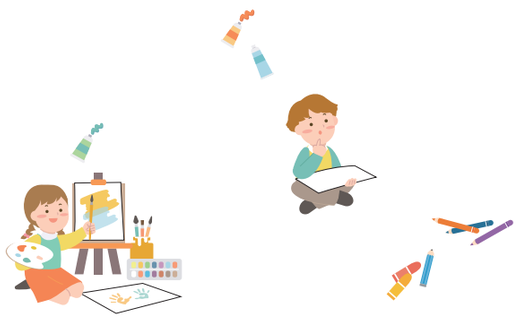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유튜브 바로가기



▲2024. 4. 13.(토) 자연사박물관 중앙홀, 봄 음악회

5월 어린이날 기념 그림그리기 대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기념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박물관 전시물을 중심으로 배경에 참가 어린이들의 상상을 표현하는 시간이었어요. 올해도 역시 멋진 작품이 많이 나왔네요! 수상작은 1층 아트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어요. 참여한 친구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







▲2024. 5. 6.(월) 자연사박물관, 어린이날 기념 그림그리기 대회

5월 어린이날 기념 야외행사 '찾아가는 재활용 놀이터 수퍼큐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지역 시민과 안산도시자연공원을 찾는 방문객도 참여할 수 있는 야외 체험행사가 있었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재활용되는 과정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어린이가 지구의 미래를 위해 재활용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는 특별전시 「플라스틱 플라넷」과 연계한 행사입니다. 전시는 박물관 내부에서 8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 2024. 5. 4.(토)~5. 5.(일) 자연사박물관 매표소 앞, 찾아가는 재활용 놀이터 수퍼큐브









07 관람안내

관람시간
- 3 ~ 10월(하절기) 평일 9:00 ~ 18:00 공휴일 9:00 ~ 19:00
- 11 ~ 2월(동절기) 평일 9:00 ~ 17:00 공휴일 9:00 ~ 18:00

입장 및 매표마감 : 폐관 1시간 전

휴관안내
- 1월1일, 설날당일, 추석당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

관람안내
- 개인관람 : 예약 없음, 관람인원 및 시간제한 없음
- 단체관람 : 예약 필요(namu.sdm.go.kr 홈페이지-안내-단체관람안내)
- 전시장 음료반입 금지, 나무홀 취식가능(배달음식 금지)
- 무료관람 대상자 추가(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개정 2024. 3. 6.시행)
  - 서대문구 거주 주민으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그 자녀
  - 서대문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통·반장증 소지자

전시해설 안내
- 도슨트 전시해설 : 오전 11시, 오후 2시(주말·공휴일 오후 4시 추가 운영)
- 어린이도슨트 전시해설 : 주말, 공휴일, 방학 중 비정기적 운영

연간회원제
- 연간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입장, 교육프로그램 할인 등 혜택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가입하세요(namu.sdm.go.kr).

카카오 채널 안내
- 카카오톡에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추가하고 소식을 받아보세요.

주차안내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 박물관 주차장 만차 시 연북중학교 주차장 이용 가능합니다.
(11시30분 이후)

대중교통 안내
- 지하철 신촌역(2호선) 4번 출구 - 마을버스 서대문 03번 환승
- 지하철 홍제역(3호선) 4번 출구 - 버스 7738번 환승
- 버스 110번, 163번, 7017번, 7720번, 7738번
- 서대문 명소 순환 셔틀버스

(문의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02-360-8685)

순환 셔틀버스 시간표

주소 문의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51(연희동)
- 대표전화 : 02-330-8899

서대문자연사박물관
SEODAEMUN MUSEUM OF NATURAL HISTORY